

국어 기출해설 (1책형)

해설 - 신동수 교수(KG패스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앞부분의 줄거리]

오 일병과 ‘나’는 기동 훈련에 대비하여 참호를 파다가 철사에 감긴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을 모셔 온다. 그와 함께 유골을 수습하여 간단하게 장례를 지낸 뒤 노인을 배웅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

첫 휴가를 받아 집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다. 밤새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와 집에 닿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나는 ㉠그득한 밭상을 보고 놀랐다. 아이들처럼 연신 수줍은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참, 이상도 하지. 네가 온다는 말에만 정신이 팔려 깜박 잊고 있었는데, 글썄 오늘이 그 양반 생일이로구나. 누구 말예요?

느그 아버지 말이다.

얼굴에 그렇게 말해 놓고, 그제서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황황히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어머니. 그 애긴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진 진즉 죽은 사람이예요. 아니, 설사 살아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백번 나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애야. 아직 살아 계실지 누가 안다고 그래.

죽었어요. 그런 줄만 아시라니까요!

그래도.....살아 있기만 하믄야 언젠고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다.....

나는 기어코 폭발하고야 말았다.

어떻게요? 이제 와서 대체 어떻게, 어떤 꼬락서니를 하고 서로 만난다는 말입니까, 네?

입에 씹히는 대로 나는 내뱉고 있었다. 손가락을 쥔 손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다.

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빌어먹을 놈의 이, 이..... 주둥아리가 방정이지 뭐이다냐.

어머니는 훌쩍 등을 돌리고 앉았다. 그리고 주섬주섬 저고리섶을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앓아누웠을 때라도 입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㉔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쩡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찼렁찌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 오는 그 ㉕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욱. 까우욱.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 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 서서 그 ㉠물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굽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 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문 1. ㉠~㉢을 등장인물의 심리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다림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 : '나'가 느끼는 전쟁의 냉혹함과 압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 '나'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나야 할 전쟁의 희생자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 :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의 심정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까마귀'는 원형적 상징으로도 그러하지만, 이 소설의 문맥상으로 보아도 '음산하고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의 까마귀들은 분명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물이다. 까마귀는 이념적 대립이나 분단, 혹은 그것이 유발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희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마귀'와 대조되는 '함박눈'과 '사기대접'의 하얀 빛깔은 분단으로 말미암은 '나' 혹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용서와 화해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소재이다.

작품 관련 정보가 제시된 [문 3]의 <보기>를 먼저 읽은 뒤 문제 확인과 지문 읽기를 해 나가도록 한다.

문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서 사건의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 회상을 교차시키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현재와 과거의 교차와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중첩되어 현재와 과거를 이어가며, 이를 통하여 이념의 굴레와 분단의 비극성이 현재까지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잦은 장면 전환으로 사건의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의 서술은 적절치 않다.

문 3.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작가는 1981년 단편 <개도독>으로 등단하였다. 그의 작품은 분단 문제와 이념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분단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의 소설적 관심은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그로 인한 상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동요되는 개인의 모습에 있다. 이 작품에서도 전후 세대가 유산처럼 안게 된 이데올로기의 상흔과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 ① ‘나’가 하얀 사기대접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것은 이데올로기의 상흔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 ② ‘나’가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초래한 개인의 동요를 발견할 수 있다.
- ③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시대적 아픔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극복하려다 좌절을 경험하는 ‘나’의 무기력한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 ④ ‘아버지의 땅’이란 제목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데올로기로 인한 아버지 세대의 상흔이 깃들여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답: ③

해설: 우선 <보기>에 언급된 주요 개념어가 선지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런데 ③에서 말한 ‘극복하려다 좌절’, ‘나의 무기력한 모습’ 등은 <보기>와 관련되지 않으며 이 글과도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에는 ‘이데올로기의 상흔을 치유해’가, ②에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초래한 개인의 동요’, ④에서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아버지 세대의 상흔’이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된다.

문 4. ‘나’의 입장에서 ㉠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는 현실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심정 사이의 괴리
- ②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어머니의 체념

- ③ 아버지의 부재라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한계를 느껴 포기한 어머니의 아픔
- ④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절망감을 아들에 대한 희망으로 바꾼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

정답: ①

해설: ① 문맥을 보면,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현실과 소망의 괴리(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완고한 기만'(고집 세계 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7)

벤담과 같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은 계측과 합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공통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벤담의 효용이라는 개념은 공통의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체코에서 일어난 필립 모리스 담배 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담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흡연자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연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등의 예산이 절약되어 국가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울 때 국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므로 국가는 담배를 금하지 말고 계속 피우게 하는 편이 좋다는 이 결과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필립 모리스는 사죄하게 되었다.

포드사는 소형자동차 핀토의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죽는 인간의 생명이나 부상자들의 부상을 그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 속에 넣고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국의 분석에서 고령자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면서 할인했다는 예, 자동차의 제한용 편익분석에서 인명을 화폐로 환산해서 인명을 잃은비용보다 방지 대책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행위나 정책이 정당화되었다는 예도 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중략>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냡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냡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텐데.”

㉞“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훔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 박지원, ‘허생전’ -

문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갈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영웅적 면모를 가진 인물을 내세워 당대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양민이 도둑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군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도가 된 이유가 땅과 처자식이 없어서라는 내용은 작가가 당대 민중의 삶이 피폐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④ 허생이 군도를 데리고 가 빈 섬을 개척한 것을 통해, 작가는 조선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섬에 들어간 행위는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상향 건설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④에서 말한

‘영토 확장의 필요성’은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지나치게 확대한 해석이다.

문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글 읽기의 목적은 입신양명이고 이는 그녀의 실용적 학문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② ㉡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을 허생에게 추천하고 있다.
- ③ ㉢ : 글 읽기에 대한 허생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으로 허생은 도를 이루기 위해 글 읽기를 한 것이다.
- ④ ㉢ : 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부분으로 이 시대에도 상업 자본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에서 허생의 처가 남편에게 ‘장인바치’(물건 만드는 사람) 일을 권유하는 것은 남편에게 맞는 직업 이어서가 아니다. 공장이나 상인, 즉 공상(工商)도 사(士) 계층과 다를 바 없으며, 가난한 양반도 실사구시 차원에서 실용적인 직업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과 선비의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문10. ㉠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 ③ 가도벽립(家徒壁立)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정답 : ④

해설 : ㉠은 가난한 살림에서 그저 겨우 먹고살아 가는 방책을 뜻하는 ‘호구지책(糊口之策)’에 해당된다. ①, ②, ③은 모두 가난한 처지와 관련 있지만, ④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관한 성어이다.

오답풀이

-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오른다는 말로, 매우 가난한 집을 가리킴.
-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한 달에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한 처지.
- ③ 가도벽립(家徒壁立): 빈한한 집안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네 벽만 서 있다는 뜻으로, 살림이 몹시 구차한 처지를 가리킴.

문11. 다음 중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에서 올바른 것은?

< 보기 1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

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 보기 2 >

- ㉠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삶**을 살았다.
- ㉡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이 자주 얼었다.
- ㉢ 영화는 깊은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 진행자가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① ㉠의 ‘삶’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 ② ㉡의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③ ㉢의 ‘잠’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④ ㉣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정답: ②

해설: ㉡의 ‘얼음’은 서술성이 없고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파생 명사이다. ‘노면에 얼다’로 보아 마치 서술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얼다’는 부사어가 필요치 않은 동사로 ‘노면이 얼다’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②는 바른 설명이다.

오답풀이

- ① ㉠ ‘불우한 살다’의 구조가 되지 않으므로 ‘-ㅁ’은 서술성이 없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삶’은 명사이다.
- ③ ㉢의 ‘잠’은 서술성이 없는 명사이므로 ‘-ㅁ’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고, ‘잠’은 ‘잠을 자다’의 구조로 서술성이 있으므로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잠’은 동사이다.
- ④ ㉣의 ‘웃음’은 부사어 ‘크게’의 수식을 받고, ‘크게 웃다’로 서술성이 있다. 따라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고, 품사는 동사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14)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네
 정정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뉘 벗할고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차환*을 불러 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상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납촉이 밝
 았을 제
 나옴나옴 고초 앓아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여 내어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궁을 펼쳤는 듯

심궁 풍류 절고에 홍수궁을 마아는 듯
 섬섬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숨의는 양
 가인의 얇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 듯
 ㉠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왕모에게 부치
 는 듯

춘면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우회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러 하니 섞인 안개 가리었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이 자랑하고
 ㉡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옳을손
 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일여자가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는 듯 하직는 듯
 몽롱이 잠을 깨어 정녕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워 담아
 꽃다려 말 붙이니 그대는 한치 마소
 세세연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 동원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의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고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내고 일로 하여 지어서
 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 차환 :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젊은 계집종.
- * 여공 :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 * 파사국 : 페르시아.
- * 팔자미 : 몹시 성내어 얼굴을 일그러뜨렸을 때의 눈썹을 이르는 말.
- * 수호 : 수를 놓은 휘장으로 가린 문.

문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 ④ 끝 부분을 보면 의인화한 봉선화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며 위로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지만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봉선화를 녹의홍상을 입은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 ② 봉선화 물들이기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꽃잎을 따는 일에서부터 꽃잎에 백반을 넣어 간 것을 손톱 위에 얹고, 그것을 다시 종이로 감아 실로 묶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풀어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흰 구슬(백반)과 빙옥 같은 손’의 백색 이미지에 붉은 봉선화를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백반/봄/여/에

「봉선화가」

[핵심 정리]

- 갈래 : 내방 가사, 규방 가사
- 구성
 - 서사 : 백화보에서 본 봉선화의 아리따운 모습
 - 본사(1) : 정숙한 여인의 기상인 향기 없는 봉선화
 - 본사(2) :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
 - 본사(3) : 봉선화물이 든 손톱의 아름다움
 - 결사 : 규중 여인(화자)과 봉선화와의 인연
- 제재 : 봉선화 물들이기
- 주제 : 봉선화를 통해 담은 여인의 아름다운 정회

[해석]

고운 섬돌 깨끗한 흠에 촘촘히 심어 내니/봄 삼월이 지난 후에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시오./취한 나비와 미친 벌들이 따라올까 두려워서라네./정숙하고 조용
한 저 기상을 여자 외에 누가 벗하겠는가./옥난간 긴긴날 보아도 다 못 보아/사
장을 반쯤 열고 차환을 불러내어/다 핀 봉선화꽃을 따서 수상자에 담아 놓고/바
느질을 중단한 후 안채에 밤이 깊어 밀촛불이 밝았을 때/자춤자춤 꽃꽂이 앉아
흰 백반을 갈아 바수어/옥같이 고운 손 가운데 호무러지게 개어 내니/ 페르시아
제후가 좋아하는 붉은 산호공을 해쳐 놓은 듯하며/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홍수궁
(붉은 도마뱀)을 뺏아 놓은 듯하다./가늘고 고운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모양은/미인의 뺨 위에 홍조가 어리는
듯하며/단단히 묶은 모양은 비단에 옥으로 쓴 편지를 서왕모에게 부치는 듯하
다./봄잠을 늦게 깨어 열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 놓고/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려
고 하니/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하여/그것을 손으로 잡으려 하
니 어지럽게 흩어지고/입으로 불려고 하니 입김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여자
친구를 불러서 즐겁게 자랑하고/봉선화 앞에 가서 꽃과 손톱을 비교하니/쪽 잎에
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것이 아니 옳겠는가./은근히 풀을 매
고 돌아와서 누웠더니/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홀연히 내 앞
에 와서/웃는 듯 정그리는 듯 사레하는 듯 하직하는 듯하다./어렴풋이 잠을 깨어
꿈꿈이 생각하니/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을 고한 것이다./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품을 살펴보니/땅 위에 붉은 꽃이 떨어져서 가득히 수를 놓았다./마음
이 상해서 슬퍼하고 날날이 주위 담으며/꽃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한스러워 마
소./해마다 꽃빛은 옛날과 같으며/더구나 그대 자취가 내 손톱에 머물러 있지 않
은가./동쪽 정원 복사꽃 자두꽃은 잠깐 지나가는 봄을 자랑하지 마소./이십 번
꽃바람에 그대들이 적막하게 떨어진들 누가 슬퍼하겠는가./안팎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일세./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로
구나!

문1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경박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봉선화의 정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미화된 표현을 통해 정성스럽게 종이와 실로 손가락을 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 꽃물의 색보다 봉선화 꽃잎의 색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태도를 통해 화자와 봉선화와의 인연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 꽃잎의 색보다 손톱에 물들인 봉선화 꽃물의 색이 더 붉다고 표현한 것이다. ③은 비교가 반대로 된 서술이다.

문14. 화자의 봉선화에 대한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郟裯)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패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 ②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냥하여 줌 못 드러 호노라
- ③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남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실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홀 브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도하호노라.

정답: ①

해설: 앞부분에서 화자는 경박한 남자들을 멀리하는 봉선화의 행실이 곧고 정숙하다고 예찬하였다. ①의 시조도 철쭉 및 진달래꽃과 대조하여 매화의 지조를 예찬하였다.

오답풀이

- ②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한 이조년의 시조이다.
- ③ 은사의 한정을 노래한 월산 대군의 시조이다.
- ④ 산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낸 윤선도의 ‘만흥’이란 작품이다.

<p>각/음/이/해</p>
<p>④ 「매화사」 제8수 [해석] - 안민영</p> <p>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꽃인가 진달래꽃인가 은 세상이 눈에 덮여 있는데 제 어찌 감히 필 것인가 알겠구나, 백설 속에서도 봄인 양하는 것은 매화밖에 또 누가 있으랴.</p>

문1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 보기 >

- ㉠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은 ㉡의 '깎다'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 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본용언은 띄어 쓴다.

- ①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 ②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 ③ 그는 부모님을 여윈 슬픔을 이겨 냈다.
- ④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9)

(가)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혜 나는
삭삭기 세물애 별혜 나는
구은 ㉠밭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호신 님물 여희으와지이다

玉으로 蓮入고즐 사교이다
玉으로 蓮入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接柱호요이다
그 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三同이 뛰거시아

有德호신 님 여희으와지이다

- 정석가(鄭石歌) -

(나)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청산별곡(靑山別曲) -

문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열거의 방법으로 밝히고 있다.
- ③ (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④ (나) 반복적인 여음구의 사용으로 운율적 효과를 얻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적으로 설정하여 영원한 사랑을 갈구한 노래로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움을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한 ②의 진술은 적절치 않다. 다만 다른 장과 달리 제1장은 태평성대를 희구한 내용으로 의식요의 서사 성격을 지닌 부분이다.

문17.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 보기 > —

작가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밤 ② ㉡바회
 ③ ㉢새 ④ ㉣물아래

정답: ③

해설: ③ 시름 많은 화자의 삶과 비애의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문18. (가)의 시와 발상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동지(冬至)스 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쪼리라.
 - 황진이 -
- ② 江山(강산) 죠흔 景(경)을 힘센이 타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헝여 엇들쑤이
 眞實(진실)로 금(禁)헝리 업쓸쑤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
- ③ 나무토막으로 당닭을 깎아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얹히고
 이 새가 꼬끼오 하고 울며 때를 알리면
 어머니 얼굴은 비로소 서쪽으로 기우는 해처럼 늡으소서.
 - 문충 ‘오관산요’ -
- ④ 뿔뿔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자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홍량 -

정답: ③

해설: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영원하기를 소망한 작품을 연결하면 된다. ③의 ‘오관산요’도 나무 닭이 울 때에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늡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며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있으므로 ‘정석가’와 발상이 유사하다.

오답풀이

- ①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물처럼 표현하여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의태어의 조화도 뛰어나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자연 완상의 흐뭇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④ 도치법과 산 버들가지를 매개물(분신)로 삼아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문19. ㉠와 운율의 형성 방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강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박두진 ‘해’ -
- ②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④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정답: ①

해설: ㉞는 'AABA'의 운율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①의 경우도 '해야 솟아라.[A]/ 해야 솟아라.[A]/말갱게 씻은 얼굴[B]/(고운) 해야 솟아라.[A]의 율격 구조를 보여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

<앞부분 줄거리> 유광억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유광억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경시관과 경상 감사는 과거 시험에서 유광억의 글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한다.

경시관이 그 시권을 읽고서,
“이게 필시 유광억의 시야!”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구가 빼어난 곳에 여기저기 붉은 먹으로 점을 찍고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시권 하나가 제법 잘 되었으므로, 이하의 두 번째로 뽑고, 또 시권 하나를 삼등으로 뽑았다. 시권 머리의 봉해 둔 곳을 뜯어 이름을 확인하니 어느 시권에도 유광억의 이름이 없었다. 경시관이 남몰래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유광억이 남의 돈을 받아 써 준 것으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글의 차이를 낸 것이었다.

경시관은 비록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감사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유광억의 자백을 받아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공식 문건을 합천으로 내려 보내 유광억을 잡아 올리게 했다. 재판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

유광억은 군에서 구속되어 감영으로 송치될 판이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과거 법규를 해치는 도적이니, 감영으로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는 밤에 친척을 모아 놓고 한껏 술을 마셔 댔다. 그리고는 몰래 강물로 나가 몸을 던져 죽었다. 경시관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애석하게 여겼다. 사람들 가운데 그

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 “유광역은 과거 법규를 해친 죄과 때문에 죽은 것이니,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천하에는 팔지 못할 물건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자도 있다. 심지어 가느다란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사고판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팔았다는 일은 없었다. 어찌 물건치고 다 팔 수 있거늘, 마음이라 하여 팔지 못하겠는가? 유광역 같은 자는 바로 그 마음을 판 자가 아니겠는가?

아! 누가, 천하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법으로 따지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이로다.

- 이옥, ‘유광역전’ -

문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인물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 ② 높은 지위에 올랐던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다.
- ③ 당대 시험 제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인물과 관련된 일화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②

해설: 주인공 ‘유광역’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남의 과거시험 답안을 대리로 작성해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글은 소설로서 ‘유광역’은 허구적 인물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문21.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광역은 능력이 뛰어났으나 단명한 인물이다.
- ② 경시관은 시 작품을 보는 안목이 매우 탁월하다.
- ③ 유광역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판 인물이다.
- ④ 경시관은 글을 파는 유광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정답: ④

해설: 끝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광역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겼고, 경시관도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④의 진술은 적절치 않다.

문22. ‘군자’의 논평 ㉠과 ‘매화외사’의 논평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합당한 결정이라 생각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 ②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이 당위적인 이유를 설명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우연적인 것이었음을 설명하였다.
- ③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확장시켜 평가하고 있다.
- ④ 군자는 유광역의 죽음에 대해 간단하게 논평하였고,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따지며 논평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매화외사’는 곧 작자를 가리킨다. ‘군자’와 달리 작자는 논평에서, 당대의 부정적 세태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매화외사가 유광역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할 수 없다.
- ② 매화외사는 유광역의 죽음을 우연적인 것이었다고 하지 않았다.
- ④ 선지 진술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매화외사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양심을 판 행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지 ‘유광역의 죽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유광역이 죽음으로써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아니다.

단/문/이/해

이육, 「유광역전」

[해제]
 ‘유광역전’은 당대 인물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동시에 풍자에 탁월했던 작가 이육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세태 소설이다. 이육에 집착한 나머지 양심까지 파는 지경에 이른 당대 현실을 ‘유광역’이라는 인물의 간략한 전기(傳記)를 통해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힘으로써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전기적, 현실 비판적, 경세적
- 특징: 특정 인물의 행위를 통해 당대의 부정적 세태를 드러냄. / 일화에 대한 작가의 논평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 주제: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타락한 시대상 비판
- 연대: 조선 정조 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3~24)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구리 동전을 예로 들어 보자. 동전에 열을 가하면 구리 원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널리 퍼진다. 그리하여 구리 동전은 부피가 좀 더 늘어난다. 즉 밀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계속 동전을 가열하면, 결국 동전은 녹을 것이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 동전의 밀도는 고체 상태 때보다 더 작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를 계속 가열하면 그 분자들은 계속 퍼져 나가려 하고, 그 결과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거의 모든 물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만은 다르다. 10℃의 물이 있다고 하자. 이 온도에서 물은 액체 상태이다. 구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물을 냉각시켜 보자. 물을 냉각시키면 물 분자들은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기대한 바대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 4℃에 이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물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지기 시작한다. 0℃에서 물이 얼 때에는 물 분자들은 더욱 멀리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4℃의 물은 0℃의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실제로 4℃일 때의 물은 다른 어떠한 온도의 물(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어떤 온도의 물(액체 상태)도 고체 상태의 얼음보다 밀도가 더 크다. 얼음 덩어리가 유리컵 위에 떠다니거나 빙산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얼음이 될 때 물 분자들이 속이 빈 결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일어난다. 얼음이 녹으면 이 결정 구조가 무너져 물 분자들이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속이 빈 결정 구조는 물의 온도가 4℃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물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계절이 변할 때 호수나 연못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은 내려간다. 호수 표면의 물도 온도가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므로 호수 아래로 가라앉고, 그 대신 아래쪽에 있던 물들이 호수 표면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4℃ 이하로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냉각된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호수 표면에 머문다. 그리하여 호수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한다. 다른 액체 물질들은 거의 아래쪽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호수나 연못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은 기온이 0℃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계속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표면의 얼음 층이 차가운 기온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주 얇은 연못을 제외하고 호수나 강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얼음 층 아래에서 액체 상태로 남아 있다. 덕분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문23. 윗글에서 취하고 있는 논지 전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론과 실제의 대립 현상과 그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현상과 가설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표면적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면적 의미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밀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물질과 다른 물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물의 일반적인 원리와 현상을 제시한 뒤 ‘호수나 연못’의 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문24. 윗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그리고
- ③ 그러므로 ④ 따라서

정답: ①

해설: ㉠의 앞뒤 내용을 정리해 본다. 물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밀도가 증가하다가, 4℃에 이르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역접이나 전환 접속어가 와야 한다. 다만 새로운 화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와 같은 전환 접속어보다는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어가 더 잘 어울린다.

문2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그는 ㉠슬픔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다.
- 간호사는 환자의 팔뚝에 붕대를 ㉡휘감았다.
- 그 사이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다.
- 그의 집은 인근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다.

- ① ㉠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 ② ㉡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관형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명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정답: ④

해설: ㉣ ‘알-부자’에서 ‘알-’은 ‘진짜, 알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알부자’는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 ① ‘슬프-ㅁ’의 구조로, 형용사 ‘슬프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되었다.
- ② ‘휘-감(았)다’의 구조로, ‘휘-’는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보태는 접두사이다.
- ③ 우리말의 정상적인 어순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이다.